

그의 남자

황성진

사랑과 의무 사이, 진실된 마음이 마주한 가장 어려운 선택

유페이퍼

1 장: 금단의 시작

서울 강남,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거실. 재벌 3세 정현우(40세)는 아내 김유진(35세)과 함께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를 열고 있었다. 현우의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은 그의 강인한 성격을 대변했고, 유진의 우아한 자태와 지적인 분위기는 상류 사회의 완벽한 안주인을 연상시켰다.

파티가 한창일 때, 현우는 문득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테라스로 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부드러운 목소리에 현우가 돌아보니, 딸 서연의 가정교사 안재훈(28세)이 서 있었다. 재훈의 지적인 눈빛과 단정한 외모가 현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 재훈 씨. 괜찮아요. 그냥 잠깐 숨 좀 돌리려고요."

재훈은 현우 옆에 섰다. "1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현우는 놀란 듯 재훈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회장님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고독함 같은 거죠."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다. 현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인생, 꿈, 그리고 각자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우는 재훈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다. 그의 지성과 섬세함, 그리고 현우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력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현우는 재훈에게 말했다. "재훈 씨, 다음에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 해요. 오늘 대화가 참 좋았어요."

재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헤어질 때, 유진이 멀리서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2 장: 위험한 접근

며칠 후, 현우는 회사 일을 핑계로 재훈과 만났다. 그들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회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재훈이 물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재훈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신과 나눈 대화가 내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재훈의 눈이 깊어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과의 대화는... 특별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꿈, 두려움, 그리고 비밀스러운 욕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친밀해져갔다.

"재훈 씨..." 현우가 재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게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재훈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을 많이 생각해요."

그때, 찻집 문이 열리며 유진이 들어왔다. 현우와 재훈은 대화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여보, 여긴 웬일이예요?" 유진이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재훈 씨와 서연이의 교육 문제로 잠깐 만나는 중이었어."

유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의구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요? 아, 그러고 보니 서연이 성적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재훈 씨 덕분인가 봐요."

재훈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아, 네. 서연이가 워낙 똑똑해서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이야기 잘 마무리하세요."

유진이 떠난 후, 현우와 재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안도와 동시에 깊어가는 감정이 어려 있었다.

3장: 금단의 열정

시간이 흐를수록 현우와 재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연의 교육을 핑계로 자주 만났고, 그때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커져갔다.

어느 날 밤, 현우는 늦은 시간에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 씨, 지금 시간 되나요? 잠깐 만나고 싶은데..."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회장님. 어디서 뵙까요?"

그들은 한강 공원에서 만났다. 밤늦은 시간, 공원은 한적했고 그들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재훈 씨, 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이 걸음을 멈추고 현우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현우는 재훈을 끌어안았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고,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했다.

키스가 끝나고 재훈이 물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현우는 재훈의 얼굴을 감싸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옳다고 느껴져요."

그날 밤, 그들은 현우의 별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며, 그들은 깊은 교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자, 현실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훈이 물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4 장: 의심의 그림자

유진은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늦은 귀가, 불규칙한 일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의심은 깊어갔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유진은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잠금 화면에 재훈의 이름과 메시지 일부가 보였다.

"오늘 밤 9 시에 만나..."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전문이 보이지 않아 문맥을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다음 날, 유진은 친구인 민지와 만났다. 카페에 앉자마자 유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민지야,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유진은 현우의 최근 행동 변화와 우연히 본 메시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현우씨가 재훈씨랑... 뭔가 있는 것 같아."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애, 너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거니? 말도 안 돼! 현우 오빠가 어떤 사람인데. 게다가 남자랑이라고?"

유진은 고개를 푹 숙였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하나... 현우씨 눈빛이 변했어. 재훈씨를 바라볼 때마다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져."

민지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듯했다. "유진아, 넌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현우 오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하지만 유진이 계속해서 설명하자, 민지의 표정도 서서히 변했다.

"어제 밤에 재훈씨에게서 온 문자를 우연히 봤어. '오늘 밤 9 시에 만나...'라고 적혀 있더라고."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아는 믿을 만한 사립탐정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때?"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불안에 시달릴 수는 없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날 밤, 유진은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여보, 제발... 내 의심이 틀렸기를..."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이미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이 생겼고, 그 틈새로 의심의 그림자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5 장: 은밀한 조사

사립탐정 강도윤은 유진의 의뢰를 받고 현우와 재훈의 동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경력의 전문가답게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했다.

도윤은 며칠 동안 두 사람의 일상을 은밀히 관찰했다. 그는 현우의 회사 출퇴근 시간, 재훈의 가정교사 일정, 그리고 두 사람의 불규칙한 만남 패턴을 꼼꼼히 기록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은 현우가 회사를 일찍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숙련된 솜씨로 현우의 차를 미행했고, 그가 도심 외곽의 한 고급 펜션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얼마 후 재훈도 그곳에 나타났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 그는 펜션 주변을 살피며 최적의 관찰 위치를 선정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저 직업적인 냉정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몇 시간 후, 도윤은 현우와 재훈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고, 헤어지기 전 짧게 키스를 나누었다. 도윤은 침착하게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다.

다음 날, 도윤은 유진과 만났다.

"의뢰하신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다. "준비되었습니다니까?"

유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해 주세요."

도윤은 차분히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 사진들은 어제 오후에 촬영한 것입니다. 현우 씨와 재훈 씨가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보며 창백해졌지만, 가까스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게 사실이라니... 믿기 힘들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전문가다운 태도로 대답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 하루의 증거일 뿐입니다.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좀 더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군요... 맞아요. 너무 성급했네요. 얼마나 더 조사가 필요할까요?"

"보통 이런 경우, 최소 2 주에서 한 달 정도 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패턴을 확인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은 부드럽게 말했다. "가능한 한 평소와 같이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혹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면, 믿을 만한 상담사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이 말했다.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제 삶을 지키겠어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앞으로 다가올 힘든 시간들을 예감하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6 장: 위태로운 균형

사립탐정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우와 재훈은 자신들의 관계가 노출될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다. 그들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이는 그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현우는 회사 중요 회의 도중 재훈에게서 온 메시지에 정신이 팔려 실수를 저질렀다. 이사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고, 그의 오른팔이자 가장 신임하는 부하인 김과장은 특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편 재훈은 서연을 가르치는 동안 종종 멍해지곤 했다. 한번은 서연이 "선생님, 괜찮으세요?"라고 물어 그제야 정신을 차리기도 했다.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가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조사 3 주 차, 도운은 유진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었다. 현우와 재훈이 호텔 방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몇 시간 후 나오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유진은 사진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제...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도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어요. 하지만 그전에... 현우씨를 마주하고 싶어요. 그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요."

도운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시겠다면, 안전을 위해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현우가 늦게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안도감까지.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안도감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큰 변화가 올 것임을 직감했다.

7장: 폭풍의 전야

현우가 늦은 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유진이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아, 아직 안 잤어?" 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현우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현우는 아내의 심각한 어조에 긴장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현우가 거실로 들어섰을 때, 유진은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보, 이렇게 늦게 올 줄 알았으면 기다리지 말고 주무시지..." 현우의 말이 종간에 끊겼다. 유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현우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현우는 아내의 심각한 어조에 긴장했다. "무슨 일이야?"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현우 씨는 재훈 씨와 어떤 사이예요?"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소리야? 그저 서연이 선생님일 뿐이지."

"거짓말 그만해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난 모든 걸 알아요. 당신과 재훈 씨가 만나는 것도, 호텔에 가는 것도."

현우는 창백해졌다. "유진아, 이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난 이미 충분한 증거를 봤어요. 현우 씨, 우리 이혼해요."

현우는 충격에 빠진 듯 했다. "잠깐, 이러지 마. 우리 대화로 풀어보자."

"대화로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언제요? 당신이 재훈 씨와 밀회를 즐기는 동안요? 아니면 우리 가정을 배신하는 동안요?"

현우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요. 현우 씨, 당신이 재훈 씨와 행복하길 바라요. 하지만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순 없어요."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운이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네, 걱정 마세요. 곧 나갈게요." 유진이 대답했다.

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야?"

"더는 현우 씨가 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유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짐은 내일 가져가겠어요. 오늘은 호텔에서 묵을 거예요."

유진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현우는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유진의 단호한 눈빛에 멈춰 섰다.

"유진아..." 현우가 마지막으로 불렀다.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안녕히 계세요, 현우 씨. 재훈 씨에게 전해주세요. 서연이의 새 가정교사를 구해야 할 거라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현우와 유진의 10년 결혼 생활도 막을 내렸다.

8장: 파편들

유진이 떠난 후, 현우는 혼란과 절망 속에 빠졌다. 그는 밤새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거절되었다. 결국 그는 재훈에게 연락했다.

"재훈 씨... 유진이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재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현우는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훈의 목소리도 불안정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건 변함없어요, 그렇지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재훈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충돌하고 있었다.

한편, 유진은 호텔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현우 씨와 재훈 씨의 관계가 사실이었어." 유진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에 빠진 듯했다. "오, 유진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지금 당장 갈까? 너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유진은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민지야.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네가 이렇게 걱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돼."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꼭 연락해. 날이 밝는 대로 내가 갈게.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혼하기로 했어. 더는 견딜 수 없어."

민지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다.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넌 혼자가 아니야, 알겠지?"

다음 날, 현우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집에 홀로 남아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유진과의 추억들, 서연이의 탄생, 그리고 재훈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재훈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는 서연의 수업을 취소하고 집에 틀어박혔다. 현우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날 오후, 유진은 변호사를 만났다. 그녀는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현우 씨와의 대화는 어떠셨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유진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예상대로였어요.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세 곳에서 세 사람이 각자의 고통 속에 잠겼다. 현우는 공허한 집에서, 유진은 차가운 호텔 방에서, 재훈은 어두운 원룸에서.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9 장: 새로운 현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세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유진은 서연을 데리고 친절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의 부모님은 처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곧 딸을 지지하기로 했다. 유진은 낮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지만, 밤이면 홀로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아빠는 왜 안 와요?"

유진은 가슴이 아팠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연아, 엄마랑 아빠가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해. 하지만 우리 모두 너를 사랑해."

한편 현우는 회사 일에 집중하기 힘들어했다. 그의 실수가 늘어나자 이사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과장은 현우를 걱정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김과장, 내가 크게 실수를 저질렀네. 이제 와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어."

재훈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현우와의 관계도, 일자리도 모두 잃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의아해했다.

"재훈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재훈의 누나가 물었다.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누나... 내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 용서받지 못할 실수를..."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은 조금씩 새 삶에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을 되새기며 미술 학원에 등록했다.

민지는 계속해서 유진의 곁을 지켰다. "유진아, 너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 그림 그리는 게 도움이 되나 봐?"

유진은 살짝 미소 지었다. "응, 이상하게 붓을 잡으면 마음이 차분해져. 내 인생의 새 장을 써나가는 것 같아."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유진에게 전해졌다. 현우가 재훈과 함께 미국으로 떠난다는 것이었다.

유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서연아," 유진이 딸을 부드럽게 불렀다.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서연은 엄마를 바라보며 순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서 유진은 희망을 보았다.

10 장: 시간의 흐름

5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다.

유진은 이제 성공한 화가로 자리잡았다. 그녀의 그림은 상처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테마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서연은 중학생이 되어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다.

"엄마, 이번 전시회도 대박 날 거야!" 서연이 유진의 작업실에 들어오며 말했다.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서연이 덕분이지."

그날 저녁, 유진은 민지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유진아, 정말 대단해." 민지가 감탄했다. "너 요즘 잡지에서서도 화제더라."

유진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과찬이야. 그냥 내 이야기를 그렸을 뿐이야."

잠시 후 민지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현우 씨 소식 들었어?"

유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아니, 전혀. 왜?"

민지는 망설이다 말했다. "어제 뉴스에서 봤어. 현우 씨가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했대. 그리고... 재훈 씨와 함께 찍힌 사진도 있더라."

유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그래..."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삶을 살고 있나 보네."

민지가 유진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 않아. 그냥...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유진의 전화가 울렸다. 서연이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놀라 물었다. "왜, 무슨 일이야?"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가... 아빠가 한국에 왔대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싶대요."

유진은 충격을 받았다. 5년 만에 현우가 돌아왔다. 그리고 서연을 만나고 싶어한다.

유진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11 장: 예기치 못한 만남

유진은 서연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떡하죠?" 서연이 물었다.

유진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서연아. 엄마가 잘 해결할게."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우가 왜 갑자기 돌아왔는지, 서연을 만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현우였다.

"유진 씨, 안녕하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현우 씨."

"서연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현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어요. 서연이가 만나고 싶어 한다면, 허락하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주말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유진은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이 되었다. 유진과 서연은 약속된 카페에 도착했다. 잠시 후, 현우가 들어왔다. 그의 옆에는 재훈이 있었다.

유진은 놀랐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서연은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서연아..."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서연은 주저하다가 현우에게 달려가 안겼다. 유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재훈은 유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유진 씨. 제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현우 씨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재훈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어른이니깐요."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어색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현우는 미국에서의 생활과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연은 학교생활에 대해 말했다.

유진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각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지만 서연이라는 끈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

만남이 끝나갈 무렵, 현우가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유진은 잠시 현우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카페를 나서며, 유진은 이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

12 장: 화해와 성장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유진의 삶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서연은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유진은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조심스럽게 유진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가 다음 주에 한국에 오신대요. 저... 아빠랑 저녁 먹어도 될까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래, 괜찮아. 하지만 엄마도 함께 가면 어떨까?"

서연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엄마도 같이 가 주실 거예요?"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다음 주, 그들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재훈은 오지 않았다.

"유진 씨,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를 위해서예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서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진은 서연이 미술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고, 현우는 기쁜 듯이 들었다.

"서연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현우가 말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유진 씨, 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현우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물었다. "엄마, 아빠... 이제 화해한 거예요?"

유진은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그건 너를 위해서란다."

몇 주 후, 유진의 새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다. 놀랍게도 현우가 나타났다.

"축하드립니다, 유진 씨. 정말 멋진 작품들이예요." 현우가 말했다.

유진은 약간 당황했지만 대답했다. "고마워요, 현우 씨."

그들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다가, 현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유진 씨,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정말 잘 해내셨어요."

유진은 현우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현우 씨. 당신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이 진정으로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풀리는 듯했다.

(끝)